

최근 국내석유수요구조는發電用 B-C油 소비감소와 수송용 석유소비증대로 석유수요의輕質化·高級化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.

동력자원부가 발표한 「월간에너지동향」에 따르면, 국내 석유수요의輕質化비중은 85년 1~9월중 59.8%에서 86년 동기간에 64.5%, 그리고 87년 동기가죽에는 전년동기

최근의 석유수요동향과 전망

대비 4.1%포인트 늘어난 68.6%를 기록했다. 또 금년 1~9월중 유종별 석유소비동향을 보면, 전년동기에 비해 휘발유 19.3%, 輕油 10.6%, 나프타 12.0%가 늘어났고, 가정용 취사연료인 프로판과 택시연료인 부탄은 각각 31.0%, 11.0%가 증가했다. 그 반면에 B-C油는 산업, 가정·상업 및 수송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8.5% 감소했다. 이는 주로 발전부문의 수요가 무려 65.0%가 감소한데 기인된 것이다.

1~9월중 부문별 석유소비를 보면, 수송용이 전년동기 대비 23.8% 증가하였고, 산업용도 경기활성화에 따라 9.2% 늘어났으며, 또 가정·상업용이 14.9% 증가한 반면, 發電부문은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LNG(액화천연가스) 투입등으로 63.6% 감소했다.

최근의 石油소비 추이 (單位: 千배럴, %)

	86. 1~9	87. 1~9	증감률%
휘발유	6,199	7,395	19.3
등유	5,639	5,554	△ 1.5
경유	40,327	44,591	10.6
B - A 油	1,408	1,724	22.4
B - B 油	756	903	19.4
B - C 油	47,169	43,137	△ 8.5
항공유	6,437	6,681	3.8
나프타	21,912	24,532	12.0
용제	317	362	14.3
프로판	6,601	8,644	31.0
부탄	6,021	6,684	11.0
아스팔트	2,189	1,962	△10.4
計	144,973	152,168	5.0

〈資料〉 동력자원부

金 乾 治
(本誌 편집인)

부문별 石油소비 추이

(單位：千배럴)

	1986. 1~9	1987. 1~9
産業	59,820	65,350
수송	38,935	48,198
가정·상업	19,209	22,072
공공·기타	9,767	9,961
發電	16,494	6,002
가스제조	747	585
計	144,973	152,168
국제빙커링	4,976	7,999

〈資料〉 동력자원부

제2차 석유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脫石油정책은 석유제품수요의 균형적 감소 보다는 주로 發電 및 산업부문에서 B-C油의 代替를 촉진하는 脫B-C油정책쪽으로 추진됨으로써 LPG, 휘발유, 경유등 경질유 소비는 늘고, 그 반면에 重質油인 B-C油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는등 석유제품수요의 輕質化현상과 함께 석유제품수급의 불균형을 야기시켰다.

그 결과 1979년에 輕質제품과 重質제품의 구성비가 45대55이던 것이 1986년에는 66대34로 역전되었고, 또 오는 1991년에는 71대29까지 벌어질 전망이다.

석유제품 수요구조 변화추이

(單位：%)

	1979	1983	1985	1986	1991 (추정)
輕質油	45	52	60	66	71
重質油	55	48	40	34	29

또한 정부는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저유황油의공급확대를 추진하여 종전 4.0%이던 B-C油의 유황함량을 단계적으로 1.0%까지 낮추도록 하고 그 사용의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은 정유사로 하여금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重質油분해시설 및 脫黃시설에 대한 투자문제에 직면케 하였고, 이는 현재 국내정유산업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.

우리나라의 重質油분해시설은 지난 1985년 3월에 가동을 개시한 湖南精油의 비스브레이크(3만3천B/D)가 그 효시이며, 현재 極東石油가 瑞山에 건설중인 본격적인 중질유분해시설(3만4천B/D)은 오는 1988년중 가동에정이다.

동력자원부의 「重質油분해 및 탈황시설설치추진방안」에 따르면, 중질유 분해시설기준으로 1차로 1987~1989년중 油公과 京仁에너지가 각각 3만B/D, 1만B/D, 2차로 1989~1991년중 雙龍精油가 1만B/D, 그리고 3차로 1991~1993년중 湖南精油가 3만4천B/D 규모로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極東石油가 瑞山에 건설중인 3만4천B/D 규모의 시설과 더불어 오는 1993년까지는 국내정유5사가 총 14만7천B/D 규모의 분해시설을 갖추게 되며, 또 脫黃시설도 같은 기간동안 총 10만B/D 규모의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.

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안은 세계석유시장동향 및 석유제품 수급전망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투자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크게 좌우된다.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질유 분해시설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, 과연 어느 시기가 최적투자기회인지 다각도로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라 하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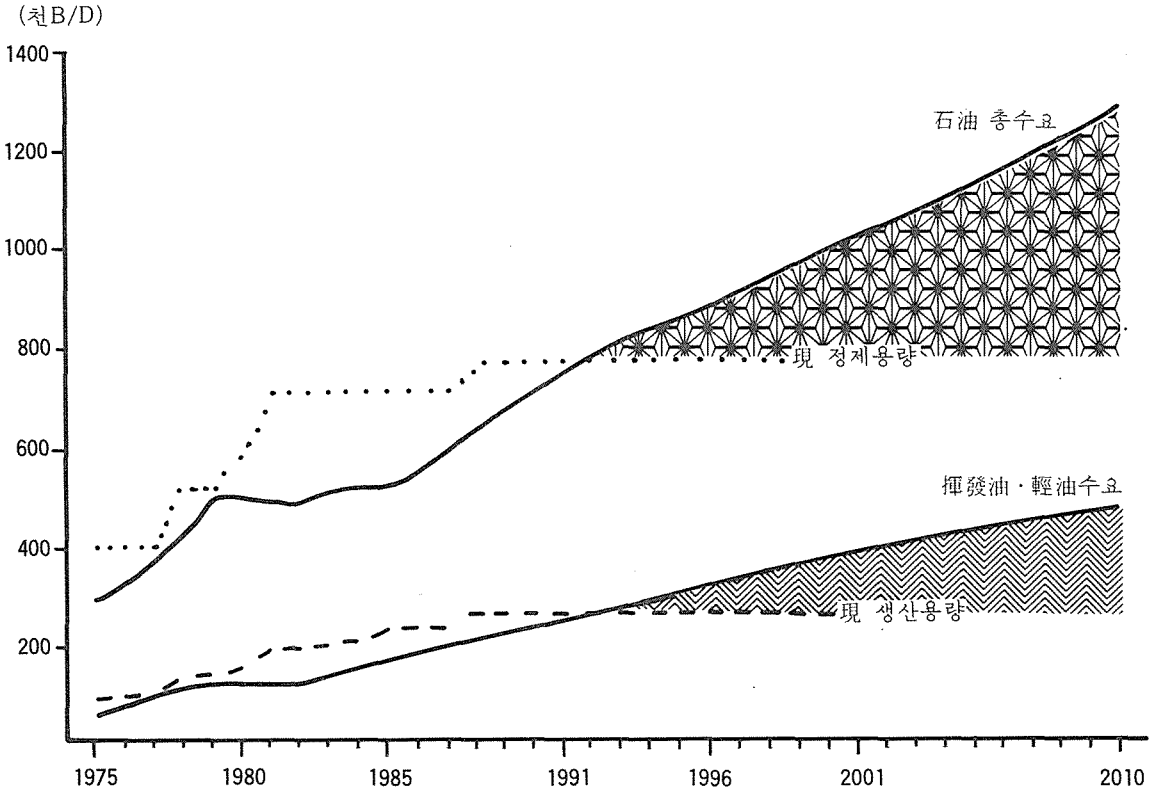
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重質油분해시설 소요 전망에 따르면, 1992~1996년간중 3만B/D 1基, 1997~2001년간중 3만B/D 1基등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6만B/D의 분해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 오는 2010년에는 重質油분해시설용량이 전체 정제용량의 7.7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는 정부의 계획보다 최소한 3년 이상 늦추어 잡은 것으로서 重質油분해시설 설치시기에 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.

일반적으로 중질유분해시설 설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투자효율성의 제고로 지적되고 있다. 중질유 분해시설등의 시설고도화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성이 불투명할 때 선뜻 건설하기는 어려운 일이다. 정유업체가 향후 석유수급에 대한 정부의 비전, 특히 油價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.

輕質원유와 重質원유의 가격차 면에서 볼 때 최소한 배럴당 6~8달러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나, 현재는 배럴당 2달러 전후이며, 이 정도의 가격차로서는 경제성 확

석유수요 및 精製施設 전망



〈資料〉 에너지경제연구원, 「韓國의 에너지미래」

보가 어렵고, 앞으로도 가격차가 배럴당 6달러 이상 벌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
원유의 重質化 및 석유제품의 경질화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, 80년대초에 이미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경질제품과 중질제품 수급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앞다투어 이에 대한 투자를 한 바 있으며, 현재는 설비과잉으로 주춤해진 상태이다.

미래를 예측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. 장기적으로 볼 때 중질유분해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

되나 이에 대한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고 현재도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질유분해시설 설치의 시기선택은 신중을 요한다고 하겠다. 또 중질유분해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.

앞으로 에너지가격정책은 종전의 개별연료 위주의 산업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연료간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 에너지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본원적 가격정책으로 발전시키고, 투자선도적 기능으로서의 가격기능역할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□

외화주고 사온석유 한방울도 낭비말자